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 규모 확대

시, 조성계획안 보고회…전국 첫 산악형 관광시설 232만 7076㎡ 3700억 투자

광양시가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한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안'을 공개했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안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조성계획안에 대한 사전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LF스퀘어 지역협력사업 일환으로 (주)LF리조트가 광양시 황금·황길동 일원의 232만 7076㎡ 부지에 37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주)LF리조트는 도입 관광시설에 대한 콘셉트와 시설을 공개했으며 '친환경 에너지 관광단지, 머물다 가는 관광지, 웰니스 관광지'를 표방한 'Welcome Forest'로 콘셉트를 잡았다.

개별 시설을 살펴보면 ▲훈드레트바서 건축 디자인과 어린 왕자 등 캐릭터를 활용한 뮤지엄 ▲조명장치를 활용한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필드 오브 라이트(Field of Light) 및 루미나 ▲이색 캠핑장 ▲스마트팜 체험장 ▲4계절 트랙 썰매장 ▲롤링 집라인 ▲무동력 모노레일 ▲산림 텃밭 ▲소형풍력 발전시설 등 관광단지로서 기능을 갖추고 지역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산악형 관광시설을 제시했다.

숙박시설은 329실 규모로 타워형 콘도, 테라스형 콘도, 단독형 빌라 등 3가지 타입으로 조성해 골퍼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장은 27홀 규모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골프코스로 개발하고 골프연습장이 함께 들어선다.

계획안은 오는 10월 중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안)'을 광양시에 제출할 계획이며, 12월 전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계획 조감도.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우리밀빵으로 골목 살린다

11월 4일 우리밀 빵축제 앞두고 제빵사 초청 제빵 실습

구례군이 '우리밀'을 이용한 제빵교육으로 골목 빵집 강화와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구례군은 지난 21일 구례주조장 예술창고에서 제빵사 등 30여 명을 초청해 '황금알 밀'을 이용한 제빵 실습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우리밀 빵축제'를 앞두고 품질 높은 빵을 축제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강천식 국립식량과학원 박사를 초빙해 밀의 재배 과정과 특성, 제빵 시 유의 사항,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구례읍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황금알밀 품종으로 만든 밀가루 150㎏을 후원받아 지역 제과제빵업체에 홍보했다. 아울러 국립식량과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구례구역 제과점, 구례당 등 현장을 방문해 황금알밀로 만든 빵을 먹어보며 우리밀이 수입밀과 경쟁력을 확인했다.

구례군은 골목 빵가게 활성화를 위한 구례 도시재생 어울림한마당 일환으로 '우리밀 빵 축제'를 개최하며 구례 제과제빵업체 15개가 황금알밀로 만든 빵을 만들어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민선8기 공약인 우리밀 베이커리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진력을 다하고, 오는 11월 4일에 우리밀 빵 축제를 성공시켜 우리밀 산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 5개 선정

문화재 야행·생생 문화재 등 7억 확보

여수시가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2023년 문화재 활용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 야행 ▲생생 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지역 문화유산교육 등 5건으로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개발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재 야행은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관람과 체험, 공연, 전시 등을 진행하는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여수시는 2018년부터 매년 공모에 선정돼 추진해오고 있다.

생생 문화재는 충무공 이순신 관련 문화재를 탐방하는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 프로그램이며, 'Restart! 여수향교'를 주제로 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호국사찰 흥국사, 여수 흥하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유산 직업 탐험대' 지역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8월 문화재청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선정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쾌거다"며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립국악단이 여수시 중앙동 국보 진남관 앞에서 대취타 행진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토속 어족자원 보존" 곡성군 치어 방류행사

곡성군이 수생태계 복원과 토속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치어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곡성군은 22일 섬진강 지류인 옥과천과 곡성천 일원에서 '토종어류 치어 희망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곡성군 주최하고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 섬진강 유역본부, 곡성군 산림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 우암어린이집 유치원생,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동자개와 붕어 등 토종 치어 6만 마리를 방류하며 건강한 하천 생태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곡성군 이번 치어 방류가 수생태계 복원과 토속 어족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철(가운데) 곡성군수 등이 '토종어류 치어 희망 방류행사'에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이상철 군수는 "오늘 방류된 치어들이 잘 성장해서 섬진강 수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지는 데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해 곡성천 등에 치어 3만여 마리가 방류된 바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순천 명예도로 '람사르길' 명칭 5년 연장 사용

시, 주소정보위 심의 거쳐 2027년 10월 22일까지

순천시는 명예도로로 지정한 '람사르길'의 사용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람사르길은 자연생태계가 온전하게 살아 있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인 순천만이 2006년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기념으로 조성된 길이다.

명예도로명은 2017년 10월 23일 이란 람사르시와 순천시의 업무협약에 따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부여했으며, 청암대 사거리에서 순천만습지 입구에 이르는 5.1㎞ 구간으로 오는 10월 22일에 사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업 유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도로명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명예도로명 부여 취지를 이어나가고자 순천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2027년 10월 22일까지 5년 연장해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람사르시와 꾸준한 국제교류를 통해 순천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명예도로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고흥맛집' 평가위원 30일까지 모집

고흥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제2기 고흥맛집' 선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흥맛집 평가위원을 모집한다.

2기 고흥맛집 평가대상은 72개소로 신규 신청 40개소, 1기 고흥맛집 재평가 대상 32개소이다.

이번부터 심사기준이 80점으로 상향됨에 따라 1기 고흥맛집 70점 이상 80점 이하 업소에 대해서도 전문가 재평가를 받도록 해 고흥맛집 선정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평가위원은 총 3명으로 신청자격은 관광·식품·조리분야 전문가(면허증 소지자로 해당경력 10년 이상, 평가위원 유경험자)와 관련 단체·협회 경력자(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분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 근무경력, 해당분야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교사로 5년 이상 근무경력, 기업체에서 해당분야와 관련해 과장급 이상 근무경력자이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평가대상 음식점을 암행 방문해 취식 후 평가표와 심사의견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며, 활동비와 시식비 등의 심사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